발표 4

동아시아 인쇄술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방울
(한국전통문화대 연구원)

1 유네스코와 유산 사이트 (heritage.unesco.or.kr/)에서 '중국의 목판 인쇄술' 항목 참조.

2 유네스코와 유산 사이트 (heritage.unesco.or.kr/)에서 '중국의 목활자 인쇄술' 항목 참조.

동아시아 인쇄술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방울 (한국전통문화대 연구원)

1. 동아시아 인쇄술 관련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현황

첫째, 동아시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무래도 본 발표문은 동아시아 인쇄술을 다루고 있기에 전근대기 인쇄술이 발달했던 지역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시기별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전근대기에 인쇄술이 발달했던 지역은 중국과 그 주변 지역들이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인쇄술이 발달했던 지역을 동아시아라는 범주로 묶고, 나라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인쇄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인쇄술은 텍스트의 대량 복제를 위한 기술이다. 구전에서 필사의 시대로, 필사의 시대에서 인쇄의 시대로, 인쇄의 시대에서 디지털 복제의 시대로, 우리 인류 문명은 진화해 왔다. 인류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인쇄술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천년 정도이다. 사회적 필요가 새로운 기술을 추동해 내고, 이를 체화한 장인들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다. 즉 무형의 필요와 기술이 유형의 물건을 산출해내는 것이다. 인쇄술과 관련하여 이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쇄에 대한 사회적 필요 → 장인과 기술 → 목판 또는 활자 → 책

본 발표문에서는 전근대 인쇄술의 대표적 방법인 목판과 활자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기술이 왜 필요했는지, 그 사회적 배경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는 장인과 기술은 무형문화유산으로, 목판과 책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 동아시아 인쇄술 관련하여 현재 두 분야에 등재되어 있는 목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목판 인쇄술이 2009년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중국의 전통 목판 인쇄술은 대대로 수작업 교육과 연습을 통하여 오늘날의 인쇄 종사자에게까지 전수되었다. 현재 양저우 광링(廣陵) 목판 인쇄소, 진링(金陵) 경전 전각 인쇄소, 더거(德格) 사원 인쇄소 등의 인쇄소가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1] 다음으로 활자 인쇄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목활자(木活字) 인쇄술이 2010년 세계무형문화유산 중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었다. 목활자 인쇄술은 중국 저장성(浙江省) 뤼안(瑞安)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목활자는 족보를 편집하고 인쇄하는 데 사용된다. 2010년 현재 약 10가구, 60~80명의 사람들이 목활자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다.[2] 인쇄술의 소

산인 목판과 관련해서는 2007년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2015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2009년 베트남 국가기록문서보관국에 소장된 응우옌(阮) 왕조(1802~1945)의 목판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2. 동아시아 인쇄술의 대세는 목판 인쇄

인쇄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목판 인쇄와 활자 인쇄가 그것이다. 그리고 활자에는 목활자와 금속활자가 있다. 물론 중국에서는 목활자 이전에 진흙활자가 최초로 시도되었지만 말이다. 15세기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창안한 활자는 금속활자이다. 그래서 인쇄술 하면 활자 인쇄술, 그중에서도 금속활자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유럽의 문화적 맥락에서만 타당하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활자가 인쇄에 있어 대세를 점했던 적이 없다. 활자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었던 물건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인쇄의 목적은 텍스트의 대량 복제이다.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주목받는 건 소수 성직자와 귀족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던 성경을 비롯한 고대의 텍스트들을 대량 생산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역할을 시종일관 목판이 담당해 왔다. 활자는 단기적으로 여러 종의 책을 소규모로 찍어낼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인쇄술의 역사에 있어서는 목판 인쇄와 활자 인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인쇄사에서 활자 인쇄, 그중에서도 금속활자에 집착하는 것은 유럽의 문화적 맥락에 편승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왜 동아시아에서는 목판 인쇄가, 유럽에서는 활자 인쇄가 주로 활용되었는가. 동아시아에서 활자가 널리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로 유럽에서는 왜 목판 인쇄가 발달하지 못했나. 목판 인쇄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활자 인쇄로 진입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물론 구텐베르크 이전에 일부 지역에서 목판화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지만 텍스트의 복제에는 목판 기술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일찍이 한자와 알파벳이라는 문자의 차이에 주목한 견해가 제출되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 차이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동아시아에서 목판 인쇄가 가졌던 우위에 대해 로제 샤르티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서양 학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우월한 것인 양 이를 기준으로 동양의 인쇄술에 대해 판단을 내려왔다. 중국과 일본의 서적 및 출판에 대해 더 잘 이해했다면 이러한 민족주의적 결론을 성급히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목판 인쇄 역시 그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중국어처럼 많은 표기 문자로 이루어진 언어, 또는 일본어처럼 다양한 표기 방법으로 이루어진 언어의 인쇄에는 목판이 활자보다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목판은 서예 표본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므로, 필사본의 제작 및 출판과 연관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목판은 내구성이 뛰어나 동일한 서적을 수천 부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판(再版) 인쇄도 편리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춘 판본 제작도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장점을 감안하면 구텐베르크의

3 미하엘 프리드리히, 「사본 문화에서의 목판 인쇄의 위치」, 『디지털 시대의 목판보존과 활용』(한국국학진흥원, 2019), 195쪽.

4 츠언 쩡 홍, 「중국 초기 금속활자본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1』(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230쪽.

인쇄 기술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은 인쇄 기술사적 의미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지만, 인쇄물의 광범위한 전파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기술은 아니었다는 뜻이다.[3]

첫째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표기 문자상의 난점, 둘째는 서예의 특징을 살리는 데 있어서의 목판의 장점, 세 번째는 대량 인쇄에 적합한 목판의 장점,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나마 목판 인쇄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인쇄술의 장단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4국 인쇄술의 특징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동아시아 4국 인쇄술의 특징

(1) 중국

중국은 목판의 나라다. 서양 인쇄 기술이 도입되기 전까지 거의 모든 책을 목판으로 찍어냈다. 그들은 활자 인쇄술을 몰랐을까. 알았다면 왜 그들은 활자 인쇄술을 널리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활자라는 기술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은 상용화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우선 중국에서 목판 인쇄는 수당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대승불교의 서사(書寫) 문화가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활자 인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시초에 대해서는 실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서나마 그 일단을 엿볼 수밖에 없다.

북송 시대 심괄(沈括)이 지은 『몽계필담』에 "필승이 진흙으로 활자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 활자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성능은 그다지 시원찮았던 모양으로 상용화되지는 못했다. 다음으로 원대 왕정이 지은 『농서』에 나무 활자와 그 배열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즉 원대에는 나무로 만든 목활자가 사용되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책들을 보면 이때에도 대부분의 책은 목판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남아 있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명대 홍치 년간(1488~1505) 무석(無錫)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 금속활자본은 화수(華燧)가 제작을 주관하였으며 회통관(會通館)이라고 명시된 사설기관에서 인쇄된 것이다.[4] 즉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인쇄된 판본이다. 현재 남아있는 판본을 조사해 보면 인쇄수준이 동시대의 조선 금속활자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금속활자는 거의 전적으로 주자소나 교서관 등 중앙정부 기관에서 제작되었다.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어 오랜 세월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동시기 중국의 민간 금속활자에 비해 양질의 인쇄를 해내고 있었다. 무석 화씨 회통관에서 인쇄한 금속활자본은 금속활자본 인쇄의 초창기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회통관 이외에 무석 화씨의 난설당, 석산안씨관 등에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 전해지고 있다.

청대에는 동활자로 인쇄한 거질의 『고금도서집성』과 목활자로 인쇄한 무영전 취진판본이 남아 있다.[5] 하지만 이 책들은 전체 인쇄 분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활자 인쇄술이 끝내 목판 인쇄술을 대신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인쇄사의 대가인 전존훈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활자 인쇄의 발명은 목판 인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 인쇄의 발전 중에 활자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일찍이 여러 차례 단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인쇄를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러한 활자 인쇄를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물론 중국에서 활자를 사용한 인쇄 효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말이다."[6] 애초에 활자 인쇄술은 목판 인쇄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강구되었지만, 그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사라져갔다고 밝히고 있다.

티안 예 교수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첫째, 중국 문자는 표의 문자로서 책을 인쇄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활자 20만 개가 필요했다. 둘째, 활자는 한 번에 더 많은 책을 인쇄하기 위해 조판하고 분해하기를 반복해야 했다. 셋째, 활자 인쇄를 위해서는 목판 인쇄보다 더 큰 비용이 필요했다. 넷째, 활자 인쇄는 서체의 아름다움과 정확함을 살릴 수 없었다. 다섯째, 중국의 금속활자는 글자 크기가 서로 달라 규격화에 실패했다. 그리고 활자 조판에 있어서도 목판보다 미감이 부족했다. 여섯째, 활자 제작에는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이 중국에서 활자 인쇄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이다.[7]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의 목활자 인쇄술은 2010년 세계무형문화유산 중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는 목활자 인쇄술이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목활자는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가. 이는 중국에서 보편적 현상인가, 아니면 특수한 현상인가.

중국의 목활자 인쇄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 기술 중 하나이다. 저장성(浙江省) 뤼안(瑞安)은 이 기술을 유지해 왔고, 여전히 이 기술을 이용하여 족보를 편찬한다. 남성은 나무에 한자를 새긴 다음 필요한 글자를 골라 식자한 후 인쇄를 한다. 여성은 종이를 자르고 장정하는 일을 맡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장인들은 목활자와 인쇄 도구를 가지고 여러 사당을 다니면서 족보를 제작한다. 목활자 인쇄술은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정밀한 훈련이 필요한 대신 수입은 적고 일은 힘들다. 그리고 현대 컴퓨터 인쇄 기술이 보급되고 족보를 제작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이 기술을 가진 장인의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8]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것이다. 현재 완벽하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의 수는 10명 내외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도 중국에서 활자 인쇄술은 특정 지방에서 민간업자들이 족보 등 특정 책을 간행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베트남

중국에서 목판 인쇄술은 적어도 6~7세기에 출현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불경과 함께 8세기 말 이전에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베트남에는 13세기 말 불교 관련 인쇄를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당시 인쇄한 책들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베트남에서 인쇄술이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15세기다.[9]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 선종과 선사들의 사적을 한문으로 기록한 『선원집영(禪苑集英, Thiền Uyển tập anh)』에 따르면 리-쩐 왕조 시대에는 목판 판각이 널리 유포되지 않고 사원에서만 행해졌

5 티안 예, 「활자 인쇄술과 보첩 각인」,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 인식과 비교』(한국국학진흥원, 2018), 214쪽.

6 위 논문, 215쪽에서 재인용.

7 위 논문, 216쪽.

8 위 논문, 216~217쪽.

9 응우옌 뚜언 끙 · 팜 반 뚜언 · 응우옌 · 카오 탄, 「19세기 불교 인쇄 문화 맥락에서 본 케호이(Khe Hoi, 溪洄)사의 목판 컬렉션」, 『아시아의 목판 보존 경험의 공유』(한국국학진흥원, 2017), 157쪽.

다고 한다.[10] 그러다가 호 왕조(1400~1407) 시기 인쇄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여 호 뀌 리(胡季犛, Hồ Quý Ly)가 지폐 인쇄를 시작했다. 수초, 물결, 구름, 거북이, 기린, 봉황새 등 복잡한 모양도 인쇄되었다.[11]

15세기에는 목판 인쇄업이 직업 마을 형태로 발전했다. 르엉 느 혹(Lương Như Hộ)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목판 인쇄술을 배워서 홍룩(Hồng Lụ) 마을과 리에우짱(Liễu Chàng) 마을 주민들에게 전해 준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12] 이후 이 지역은 베트남 최초의 전문적인 인쇄 중심지가 되었다.

응우엔 왕조(1802~1945) 시대는 목판 조각 및 인쇄업에 있어 가장 빛나는 발전기이다.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업체도 인쇄 공장을 세워서 목판으로 책을 찍어냈다. 국가가 편찬을 주관한 역사서와 백과전서 등 거질의 서적들이 인쇄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13]

이러한 책들을 찍어냈던 목판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당시에 간행되었던 책들은 다양하여 불경, 역사서, 시문, 의학서, 교재, 지리서, 법률서, 목판화 등을 망라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사찰에서 많은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는 쭉럼(竹林, Trúc Lâm), 럼떼(臨濟, Lâm Tế), 따우동(曹洞, Tào Động), 디잉도(淨土, Tịnh độ) 등 어떤 종파라도 사원 생활은 대승불교 정신을 공통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아미타경』 등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들을 중시한다.[14] 대승불교에서는 이들 경전의 수지(受持), 독송(讀誦), 해설(解說), 서사(書寫)를 강조한다.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판 인쇄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들 목판은 주로 18~19세기에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사찰로는 다수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는 간안사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빙엄사 컬렉션, 보다사 컬렉션, 드담사 컬렉션 등이 많은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이 컬렉션 외에도 베트남 북쪽은 물론이고 베트남 전역의 사원에 연구자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 규모 목판 컬렉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5] 베트남에서는 불교 사원들이 목판 판각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불교지식을 수집하고 확산시켰으며, 지역간 · 종파간 불교 네트워크를 형성했다.[16] 베트남에서는 15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인쇄술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목판은 18~19세기에 제작된 것들이다. 베트남에서 활자 인쇄술이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아마 베트남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목판을 이용하여 책을 인쇄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중국의 목판 인쇄는 부처의 성스러운 말에 귀의하여 불경의 대량 복제 행위를 성스런 종교 행위로 승화시킨 대승불교 정신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나라 시대의 백만탑 다라니는 중국 불교의 상징 복제라는 문화현상을 계승하여 체현한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길이의 본문을 제한 없이 복제한다고 하는 인쇄의 단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일본의 출판은 이후 200년 이상 정체되다가 아예 중단된다.[17]

9세기 당나라 시대의 출판은 촉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헤이안 신불교의 개척자인 입당팔가(入唐八家)[18] 들이 책을 수입해 왔다.[19] 이를 통해 책의 복제라고 하는 인쇄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

10 쩐 번 꿍 · 쩐 티 미잉, 「베트남 목판 유산의 특별한 가치」,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 인식과 비교』(한국국학진흥원, 2018), 147쪽.

11 위 논문, 148쪽.

12 위 논문, 148쪽.

13 위 논문, 149쪽.

14 응우옌 뚜언 끄엉 · 응우옌 디잉 흥, 「간안(Càn An)사 목판 사례 18~19세기 베트남 북쪽 인쇄문화 및 불교지식 네트워크」,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 인식과 비교』(한국국학진흥원, 2018), 49쪽.

15 위 논문, 87쪽.

16 위 논문, 80~86쪽.

17 스미요시 토모히코, 「일본 중세의 판목과 판본」, 『디지털시대의 목판보존과 활용』(한국국학진흥원, 2019), 7쪽.

18 헤이안 초기에 당나라로 건너가 밀교 경전을 전한 여덟 명의 승려.

19 위 논문, 7쪽.

20 위 논문, 8쪽.

21 후지와라 집안의 조상을 모시고 있는 절.

22 위 논문, 8~9쪽.

23 무네무라 이즈미,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쓰루가판 동활자」,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1』(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249쪽.

했다. 그러다가 송나라가 건립된 후 송 태조는 칙명을 내려 동아시아 최초의 대장경을 판각하게 한다. 이 대장경은 고려와 거란, 일본 등에 전해졌다. 이를 『개보장(開寶藏)』이라고 한다.

이 대장경은 일찍이 986년 카이펑(開封)에서 태종을 알현한 승려 초넨(奝然)에 의해서 일본에 들어왔다. 이 무렵부터 초넨을 지원한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를 비롯한 헤이안 귀족들 사이에서 목판본 제작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송나라 목판본 수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귀족의 주변에서 행해지는 공사(公私)의 법회가 이러한 목판본 불경을 이용하는 최대의 기회였다. 공가일기(公家日記)나 기도문 목록 등에서 목판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나 『무량의경(無量義經)』,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 『아미타경(阿彌陀經)』 등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은 손으로 불경을 필사하는 사경(寫經)의 공덕을 대체한 것이다. 사경이 책의 질을 높이고 장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목판에 의한 인쇄는 숫자에 중심을 두고 발달했다.[20] 텍스트의 대량 복제를 통해 다수의 불경을 확보하고, 이 불경들을 여러 사찰에 봉안함으로써 그 공덕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11세기 들어 송나라 목판본의 영향 하에서 목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본격적인 출판이 일본에서 실현되었다. 이러한 목판 인쇄 기술은 헤이안 귀족을 주도한 후지와라 가문의 우지데라[21] 인 나라의 고후쿠지(興福寺)에 축적되었다. 간행 년도가 알려진 것 중 일본 최고(最古)의 판본은 1088년 고후쿠지에서 간행된 『성유식론』이다. 고후쿠지가 간행한 판본을 카스가판(春日版)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미 부적 복제의 범주에서 벗어나 불경과 교리를 전파하고 텍스트 내용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으로 나아갔다.[22]

일본의 인쇄술과 관련하여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활자 인쇄술의 기원과 역할이다. 일본 활자 인쇄술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중에서 유럽의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선교사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주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의 활자 인쇄술이 전래되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일본에 처음으로 금속활자가 도입된 것은 1590년이다. 1582년 일본 큐슈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던 예수회 순찰사 알레산드로 발리냐노 신부는 일본 소년사절단의 유럽 파견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1585년 로마에 도착하여 교황을 알현하고 1590년에 귀국했다. 그 사절단에 참여했던 콘스탄티노 도라도라는 일본인 소년이 서양식 활판 인쇄 기술을 습득하고 1590년 귀국했던 것이다. 귀국하기 전인 1588년에 인도 고아에서 『하라 마르티뇨의 연설』이라는 책을 라틴어로 인쇄했다. 이 책이 일본인이 서양식 활판 인쇄술로 인쇄한 최초 판본이다.

이들은 귀국한 다음 해인 1591년 큐슈의 카즈사에서 서양식 금속활자 인쇄술로 책들을 간행했다. 이 판본들을 키리시탄판이라고 한다. 그런데 161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독교 금교령을 내리면서 기독교 관련 시설은 국외로 추방되고 서양식 활판 인쇄술 또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약 20년간 100종 이상의 책을 인쇄했는데, 현전하는 것은 약 30여 종에 불과하다.[23] 만약 일본에서 키리시탄판 인쇄술이 계속 발전했다면 동아시아 인쇄술의 전개 양상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도 금속활자가 전해졌다. 1592년과 1597년 일본에 전해진 조선의 활자본과 직공은 약 50년에 걸쳐 고활자판의 시대를 열었다. 그 영향은 게이쵸칙판(慶長勅版)을 만들게 한 고요제이(後陽成) 천황의 궁중이나 새로운 위정자가 되어 후시미판(伏見版)과 스루가

24 스미요시 토모히코, 「일본 중세의 판목과 판본」, 『디지털시대의 목판보존과 활용』(한국국학진흥원, 2019), 33~34쪽.

25 스미요시 토모히코, 「일본 목판인쇄의 역사」, 『동아시아의 목판인쇄』(한국국학진흥원, 2008), 592~593쪽.

26 스미요시 토모히코, 「일본 중세의 판목과 판본」, 『디지털시대의 목판보존과 활용』(한국국학진흥원, 2019), 35쪽.

판(駿河版)을 간행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도 이르렀다. 그들은 『사서』나 『일본서기』, 『칠서』, 『군서치요 』등과 같은 공가와 무가의 고전을 활자로 간행했다. 그 영향은 신흥 지식 계층인 의사와 일련종(日蓮宗)의 사찰, 수도의 호상(豪商)에게도 끼쳤으며, 게이초 시대(1596~1615)의 활자 인쇄를 실현했다.[24]

고활자본의 등장이 일본의 출판 역사에 끼친 영향은 무로마치 시대까지는 사찰이 거의 전적으로 책 제작을 독점하고 있었던 데 비해, 궁정이나 민간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서적을 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25] 하지만 고활자본 간행은 활자 인쇄술이 일본 훈독 책의 다양한 글자 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출판 사업의 양적 · 시간적 확대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에이 시대(1624~44) 이후에 후퇴한다. 고활자본의 시대는 출판 서점의 발생과 독자의 확대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남기고 종식되었다. 이후 출판 기술의 주류는 목판 인쇄로 회귀했다.[26]

(4) 한국

1960년대 불국사 석가탑 보수 과정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나왔다. 하지만 간기와 간행지가 없어 정확히 언제, 어디서 간행되었는지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8세기 중엽에 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목판을 이용해 책을 간행하게 된 것은 10세기 들어서의 일인 것 같다. 중국에서 오대십국의 혼란기가 정리되고 송나라가 들어서면서 문치주의를 표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활발한 서적 간행이 이루어졌고, 그 성과물들이 고려에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고려에서도 활발하게 책을 간행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는 목판과 활자를 이용한 서적 간행이 이루어졌다.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은 목판 인쇄술과 활자 인쇄술이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활자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만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던 다른 나라와는 뚜렷이 차이나는 지점이다. 이를 '한반도 인쇄술의 이원 구조'라 부르고자 한다.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왜 고려와 조선은 활자 인쇄술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켰을까.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술은 필요의 산물이다. 유럽에서 구텐베르크 활자가 최고의 발명품으로 평가받는 건 본격적으로 텍스트 대량 복제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그 역할을 이미 목판이 하고 있었다. 목판으로 필요한 수만큼의 책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목판의 가장 큰 단점은 하나의 목판으로는 하나의 텍스트만을 인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목판의 제작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었다. 필요한 책을 일일이 목판에 새겨야 하는 수고를 피할 길이 없었다. 대량의 책이 필요할 경우는 이러한 수고를 감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량의 책만이 필요할 경우는 고민이 생기게 된다. 즉 가성비를 따지게 된다. 만약 여러 종류의 책이 소량으로 필요할 경우는 그 고민이 깊어진다. 이 경우 목판 제작은 가성비가 낮다. 따라서 목판의 대안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그 대안이 바로 조판과 해체를 반복하는 활자였던 것이다. 이는 필요에 따른 인쇄술 발전의 자연스런 결론이었다.

다종 소량 생산의 필요성과 대량 생산 필요성의 공존, 이것이 한반도 인쇄술의 이원 구조를 만들어 낸 원인이다. 조선에서는 중국과 일본과 달리 서적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민간 시장의 역할이 미약했다. 18세기 이후 방각본의 제작과 유통이 민간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전체 분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일단 필요한 서적의 선정과 제작은 중앙정부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

필요한 서적들을 일일이 목판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필요한 책을 소량으로 인쇄한 후, 이 책을 지방에 배포한다. 이 책들 중 대량으로 유통시킬 필요가 있는 책은 다시 지방에서 목판으로 복각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같은 책이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이 시스템이 조선의 기본적인 도서 출판 방식이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자라는 문자는 활자와 친해지기 어렵다. 최소한 수천 개의 한자를 도합 10만 개 이상 제작해야 활자 구실을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되었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은 전적으로 한자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에서는 금속활자 제작에 몰두했다. 이를 통해 한문본 서적을 간행했던 것이다. 한글 창제 이후 언해본 제작이 이루어지면서 한글 활자 제작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소리를 표기하는 알파벳 시스템이다. 서양의 알파벳이 서양 활자 인쇄술을 가속화시킨 요인임을 앞에서도 언급했다. 대소문자와 특수 문자를 다 합하더라도 알파벳 활자는 백 자를 넘지 않는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 다해 24자이다. 그러니 한자 대신 한글을 주로 썼다면 활자 제작이 용이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서적의 제작과 유통이 촉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하지만 알파벳과 한글은 소리를 음소 단위로 분리해 낸다는 원리는 비슷하나 표기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입체적으로 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낸다. 아마 이는 한자의 성운(聲韻)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한글 표기 방식은 발음 하나하나를 표기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제작할 활자 수가 많아지게 된다. 한글 역시 활자로 제작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문자가 되어 버렸다.

4. 결론을 대신하여 – 동아시아 인쇄술을 만들어낸 힘

동아시아 인쇄술을 만들어낸 힘은 무엇인가. 우선은 오랜 시간 축적된 기초 기술의 힘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새로운 기술은 무(無)에서 나오지 않는다. 겹겹이 축적된 기술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 새로운 필요성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술 출현을 격발시킨다.

유럽 문명은 문명의 지리적 중심축이 계속 이동해 왔다. 오리엔트 지역에서 에게해로, 에게해에서 지중해로, 지중해에서 서유럽으로, 서유럽에서 브리타니아 섬으로, 브리타니아 섬에서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이제 미국도 붉은 석양을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문명은 언제나 지리적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었다. 황하와 장강을 두 축으로 하는 중국 대륙이다. 이 땅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종교가 모여들어 용광로를 이루었다. 이 용광로가 동아시아 문명의 산실이다. 이 용광로가 펄펄 끓어 다양한 금속을 잘 녹여낼 때 동아시아 문명은 융성했고, 용광로가 식어 새로운 금속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동아시아 지역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 동아시아 지역은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했다. 한자는 소리와 뜻과 모양을 일체화시킨 독특한 문자체계이다. 인류의 초기 문자는 모두 비슷한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발전 방향을 달리 했다. 모양 중심에서 소리 중심으로 진화해간 것이다. 한자 역시 많은 글자가 필요해

지면서 소리 중심으로 발전해 갔지만, 결코 그 모양을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다. 이러한 공통의 문자 생활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전통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금석(金石)에 글을 새기거나 죽백(竹帛)에 글을 쓰는 아름다운 전통이 발달해 왔다. 죽백은 종이로 진화해 갔다. 이를 통해 서예라는 예술이 탄생했다. 이 서사(書寫)를 통해 책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 서사의 전통을 벗어나 인쇄로 나아가는 데는 또 다른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 그 자극은 불교가 제공했다.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의 독특한 사유체계가 제공했다.

대승불교는 믿음을 중시한다. 어찌 보면 불교는 대승불교를 통해 수행에서 신앙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종교화된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다. 그 신앙의 끝은 무엇인가. 내가 절대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자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밀교가 불교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믿음을 중시하는 대승불교는 부처의 말이라고 포장된 대승불교 경전들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 경전들을 수지(受持)하고 독송(讀誦)하며 서사(書寫)하여 부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라고 말한다. 어쩌면 후발 주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포교 방법이었는지도 모른다.

전통적 유교에서는 문자는 성인이 제정하여 전해 준 것으로 특수 계층의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해독할 수 있는 신성한 물건이었다. 이러한 문자에 대한 신성성과 상징성이 텍스트의 대량 복제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사회가 팽창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졌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장애물을 걷어내 준 것이 대승불교의 사유였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미 문자에 대한 신성성이 사라지고 없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 들어온 대승불교는 이미 여러 언어로 번역된 불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라고 하지 않는가. 어떻게 널리 전파할 것인가. 일일이 손으로 필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미 중국에는 글자를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전통이 있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불경을 복제해 내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다음의 전개 양상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다.

참고문헌

미하엘 프리드리히, 「사본 문화에서의 목판 인쇄의 위치」, 『디지털시대의 목판보존과 활용』(한국국학진흥원, 2019).

츠언 쩡 홍, 「중국 초기 금속활자본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1』(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티안 예, 「활자 인쇄술과 보첩 각인」,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 인식과 비교』(한국국학진흥원, 2018).

응우옌 뚜언 끙 · 팜 반 뚜언 · 응우옌 · 카오 탄, 「19세기 불교 인쇄 문화 맥락에서 본 케호이(Khe

Hoi, 溪洄)사의 목판 컬렉션」, 『아시아의 목판 보존 경험의 공유』(한국국학진흥원, 2017).

쩐 번 꽁 · 쩐 티 미잉, 「베트남 목판 유산의 특별한 가치」,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 인식과 비교』(한국국학진흥원, 2018).

응우옌 뚜언 끄엉 · 응우옌 디잉 흥, 「간안(Càn An)사 목판 사례 18~19세기 베트남 북쪽 인쇄문화 및 불교지식 네트워크」,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 인식과 비교』(한국국학진흥원, 2018).

스미요시 토모히코, 「일본 중세의 판목과 판본」, 『디지털시대의 목판보존과 활용』(한국국학진흥원, 2019).

스미요시 토모히코, 「일본 목판인쇄의 역사」, 『동아시아의 목판인쇄』(한국국학진흥원, 2008).

무네무라 이즈미,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쓰루가판 동활자」,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1』(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유네스코와 유산 사이트(heritage.unesco.or.kr/)